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2月15日(金) <1974年> 第295号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新宿区戸塚1-551(〒160)

電話 03(202)5398番

發行人 崔京植・編集人 楊炯春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2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人事“등 많은案件处理

2月5・6日 總회임직원회의

二月五・六일에 총회임직원회의가 大阪KC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임직원회의는 五월회의를 위한 우리 총회측의 대표선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준비를 토의하여 만장일치로 하는 일, 또한 각교회가 요청한 교역자의 인사문제, 재정문제 등으로 2일간에 걸쳐 신중하고도 건설적인 토의 끝에 모든문제를 원만하게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1) 인사에 관한 건

- ① 박현욱 군 감신대 1년 유학, 김철현 군 한신대 2년 유학 허락.
- ② 이대경 강도사 西新井교회 청빙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폴타임」의 조건부로 허락.
- ③ 박은숙 전도사名古屋교회 여전도사 허락.
- ④ 박창환 강도사 川西교회 허락.
- ⑤ 김승준 목사 佐世保

전도소 추천.

- ⑥ 양형준 목사 京都교회 청빙건 허락.
- ⑦ 이상 합동측 선교사로 백병수 목사 파송건은 선교협약 맺은 후에 반기로 가결.
- ⑧ 안도선 선교사 임기만료 후 6월에 귀국함에 따라 송별방법은 차회에 검토기로.
- ⑨ 홍동경 목사 北部교회 부임건 수습위원회의의 수습안을 반기로함.

(2) 재정에 관한 건

- ① 一九七四년도 예산안은 지출부를 약간 수정해서 총액 四一,六〇二,〇〇〇원 가결.
- ② 안영준 목사 유가족 조위금으로 재정국원안대로 금년말까지 매월 삼만원씩씩씩 송금 허락.
- ③ 五월회의의 비용 三〇〇만원 一五〇만원 부족금은 서남 二〇만, 관서 七五만, 중부 二五만, 관

- 동 三〇만원을 각지방별로 모금기로 가결.
- ④ 홍무 주택 구인건은 안도선 선교사 사택을 매도하여 東京지방에 구하기로 함.
- ⑤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NCC) 도시산업전도(UIC) 기금을 위하여 매월 1만원씩 부당, 10월첫주일을 에큐메니칼 주일로 정하고 그날 헌금을 바치기로 결정.

(3) 기타 문제

- ① 시국에 관한 총회내 전체회의를 개최기로 결정. 三월四・五일에 京都교회에서 사회국・KCC 공회로 한다.
- ② 재일한국인활동연구소(RAIC) 이사 8명중, 총회측 이사 5명 선정은 이인하 소장에게 일임.
- ③ 五월회의의 현지준비위원장으로 서관서지방회장은 김덕성 목사 결정.
- ④ 카나다 장로교회 百주년 축하합창단 파송건 단장으로 서관원 목사 내정. 기타 문제는 전도국장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일임.
- ⑤ NCC 임시총회(四월一九일) 총대로서 이총회장, 최 총무, 김준식 관동지방회장 결정.
- ⑥ 복음신문 편집인 문제는 총회장・총무에게 일임.
- ⑦ 小杉次次 강도사 목사 시취진 허락.
- ⑧ 차회는 四월一六일, 京都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오늘의 焦点

昨年十二月末「總會」所屬의 青年たちが、韓日閣僚會議對阻止を目標に、一週間にわたる断食闘争を決定した。断食をもち、ということは、自らの生命を賭してという意味である。

信仰における政治性

青年たちのこの行動は、その出発時から「總會」内部から少なからぬ批判を受けた。批判者の論拠は政治に「信仰」が関与するのには筋がたない、と

性、人権といふ換えてもよい。現代社会にあつて一人間の基本的人権を守ろうとする運動は、必然的に政治性を帯びざるを得ないのである。

結局、信仰に生きる人間が「政治家」それは妥協とかけひきを常道とする類の人間であつて、信仰の純粹を守るのには困難である」と「政治性」とを混同するところから起る無理解が問題なのである。初代教会は、政治家の共同体ではなかつたが、深い政治性の中に、その都度決断しつつ、生きていた。私たちは信仰者であつて政治家ではない。だが、信仰の良心と決断の結晶として、政治性を帯びた生き方をせざるを得ない時もある。それこそが、時代における「地の塩・世の光」たりうる道なのだ。(K)

基本人權守護와 当面한 두 裁判

解説

朴鍾碩氏就職差別문제

朴鍾碩氏は一九七〇年八月、日立製作所소프트웨어工場의 入社試驗을 거쳐九月에 正式으로 채용通知를 받은후 먼저 다나던 会社를 그만두고日立에 入社했는데 그후日立에 入社한 朴氏는 在日大韓基督教會와 宗敎를 안배하고 入社試驗을 치렀다는 것을 理由로 採用을 取消하게 되었다. 援을 表明하고 總會 및 朴氏는 그해 十二月에 「韓國人에 대한 差別을 告發」한 會社側의 取消을 訴訟을 제기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申京煥氏는 宝塚市에서 出生하여 자랐고 高校卒業後 취직기부당하여 未成年時에 친구 9명과 伴에 가단, 8年の 実刑

申京煥氏強制送還문제

申氏は長男으로 老父를 모시고 가족의 生活를 돌보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있다. 더욱이 入國許可證이 無効로 되어 있는 韓國人의 送還은 人道的인 見地에서도 可哀하다. 東京에 上京했다.

* 새로운 한국교회를 음미케 하는... 著者 吳允台목사의 필생의 역작 드디어 出刊!

韓國基督教史

韓國景
敎史編

- ① 韓國敎會史의 새로운 集編양식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年代와 事件의 나열적인 敎會史가 아니라 그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와 힘을 표현한 살아있는 敎會史입니다.
- ② 敎會史속에 특히 나타난 한국불교와의 관계등의 흥미진진한 글과 탁월한 저자의 투사력을 바라볼수 있을 것입니다.
- ③ 韓國敎會史를 研究하는 學徒는 勿論 牧會者와 神學生들에게 이敎會史야말로 문제성을 던져주고 있는 글이 될것입니다.
- ④ 一般信徒들에게도 이敎會史야말로 必히 구독해야할 冊이며 어떤 중압감을 갖고 읽을수 있는 冊은 결코 안될것입니다.
- ⑤ 아름다운 原色畫報와 움세트로 인쇄된 本冊子는 韓國基督教史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화양장原色畫報/신국판 340 페이지/특수케이스入 보급特價 2,000원

서울시종로구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5호)

惠宣文化社

서울연동교회 목사 金炯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一方で近代化をなじとげる
上で拍車を加えているよう
であるが、しかし、その精
神的ないくつかの価値をう
ちたてる上では、一定の統
一された方向を見出しえな

李 成

堺 店 堺市西湊町 2 —
電話0722 (41)

美原店 南河内郡美原町大保
電話0723 (62)

本社 東京都板橋区新河岸1丁目14-7
電話03 (933) 3161~2 番
(932) 5 7 6 9 番
支社 神戸市須磨区若木町2丁目2-13
電話(078) 731-0242 番(代)

堺店 堺市西湊町2-115
電話0722 (41) 2144
美原店 南河内郡美原町大保 213-1
電話0723 (62) 3315

東大阪市足代北1-12(近鉄布施駅5分)
電話大阪(06)783-0131番
社長室 電話大阪(06)781-2286番